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자 료



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

보도	2023.12.21.(목) 15:00	배포	2023.12.21.(목)	
담당부서	공시심사실 공시심사1팀	책임자	실 장	조치형 (02-3145-8420)
		담당자	팀 장	이주영 (02-3145-8450)

IPO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IPO주관업무 혁신 작업반(T/F) 첫 회의(Kick-off) 개최

1. 추진 배경

- 금융감독원은 지난 '23.11.24.(금) 주관사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「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」를 개최하고
 - '과두 사태'로 촉발된 IPO 관련 신뢰성 논란 등과 관련하여 현행 상장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짚어보았으며, 주관업무 품질 제고를 위한 공동 작업반(T/F)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.
- 「IPO주관업무 혁신 T/F」는 중요 투자위험 확인 실패, 과도한 추정에 기초한 가치 산정 등 IPO 주관업무와 관련하여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점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
 - “발행사와 투자자 간 정보비대칭 해소 및 적정공모가 제시”라는 주관업무 본연의 기능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.

< IPO주관업무 혁신 작업반(T/F) 첫 회의(Kick-off) 개요 >

- ☑ 일시/장소 : '23.12.21.(목) 15:00~16:30, 금융감독원
- ☑ 주요 참석자
 - (금융감독원) 공시심사실, 기업공시국
 - (업계) 증권회사(4사), 자산운용사(2사)
 - (전문가) 자본시장연구원, 학계, 회계법인
 - (유관기관) 금융투자협회, 코스닥협회

2. 첫 회의(Kick-off) 논의 내용

- 금융감독원, IPO시장 참여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「IPO주관업무 혁신 작업반」은 '23.12.21.(목) 첫 번째(Kick-off)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
- 참석자들은 IPO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주관사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뜻을 같이하고
 - 합리적인 영업·실무 관행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습니다.
- 이를 위하여, 금일 회의에서는 **현행 제도 및 실무 관행 상 개선 필요사항**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고,
 - 향후 내부통제, 기업실사, 공모가액 산정, 영업관행, 증권신고서 작성 등 5개 분야별로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.

논의대상 5개 분야

- ① **(내부통제)** 투자자보호 및 위험관리를 위한 내부기준 및 절차 마련
- ② **(기업실사)** 실사품질 향상을 위한 실사 항목, 절차, 준수사항 등 규정화
- ③ **(공모가액 산정)** 합리적 가치 산정을 위한 주관사 자체 표준모델 마련 및 적용, 표준모델 미적용 시 내부승인절차와 증권신고서 기재 방법 등
- ④ **(영업관행)** 주관업무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계약 체결 및 수수료 관행 개선
- ⑤ **(증권신고서 작성)** 중요 투자위험 기재 누락 방지, 정보 이용자의 편익 제고 방안

3. 향후 계획

- 실무그룹 중심의 효율적인 TF 운영과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협의 및 공청회 등을 통한 폭 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'24.2분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

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